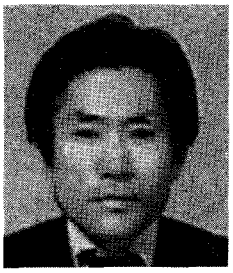
남북한 경제 및 인적교류와 광학산업의 미래상 조망



이광호 전무이사
한국광학기기협회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총리가 서명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쌍방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정식 문서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아니라 앞으로 이는 남북한 쌍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실제적인 남북경제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몇단계의 구체적, 실무적 합의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나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또한 자유로운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 수준까지 남북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질지 속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질것으로 가정한다면 경제교류는 여타 분야보다는 훨씬 앞당겨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시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내지 국경없는 자유로운 경제교류를 전제로 한 남한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남북한 공히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하에 남북간 교류를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도록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후의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하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만은 않을 듯 싶다.

여기서는 남북한 자유왕래, 경제교류 나아가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광학산업에 한정시켜 이분야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단순히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정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북한의 경제형태와 현황, 북한주민의 생활형태와 수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우선 남북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여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광학산업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인력난, 내수기반의 취약, 기술기반의 취약 등으로 이어지는 저해요인의 해소, 한편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인력 등의 결합으로 경제전반에 활성화 조건들이 접목되겠지만 특히 광학산업분야는 또다른 각도에서 활성화가 될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우선 제일 먼저 사진관련분야산업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 분야의 산업은 사진기는 물론 교환렌즈, 삼각대 등 악세사리, 필름 등 사진감재, 그리고 자동칼라현상인화기(Mini Lab)등이 될 것으로 본다. '91. 12. 17일자 한국경제 초대석에 "37년 동안 산만 찍어온 원로사진 작가" 김근원 옹이 20여만점의 산 필름을 찍었으면서도 [우리의 반쪽인 북녘의 명산들도 카메라에 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염원하였듯이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인력난, 내수기반의 취약, 기술기반의 취약 등으로 이어지는 저해요인의 해소, 한편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인력 등의 결합으로 경제전반에 활성화 조건들이 접목되겠지만 특히 광학산업분야는 또다른 각도에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진산업은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남한인구 4,300만명의 사진수요는 물론이려니와 북한의 2,700만명이 합쳐진 남북한 7,000만명이 만들어내는 사진수요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이 폐쇄되어 있는 사회로서 레저산업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레저산업이 발전될 때 그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남한)의 보유대수는 약 1,000만대 전후로 추정되나 남북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면 민족의 명산 백두산 천지와 금강산의 비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하여 보급대수는 1,200만대－1,500만대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따라 카메라 악세사리 등 분야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대수 1,000만대 전후에서 1,200만대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90년의 경우 우리나라 카메라 생산 총대수 중 수출 120만대를 제외한 70여만대가 국내수요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량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북한의 인구 2,700만명의 수요를 감안하면 엄청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필름 등 사진감재의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내 년간 필름 총 수요는 약 5,000만 Roll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한 인구 1인당 년간 1,2 Roll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국내외 여행이 자유로운 일본의 10년전 경우 1인당 2 Roll을 소비한 예를 본다면 우리도 남북한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경우 관광, 남

북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우리도 1인당 2 Roll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필름 등 사진관련 감재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현상기기 산업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남한의 자동칼라현상기(Mini Lab)의 연간 공급대수는 500대 전후, 총 보유대수는 약 2,000대 전후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사진촬영회수(Shot수)와 거의 비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Mini Lab 보유대수는 인구 1만명당 1대꼴로 보급되어 있으며 그 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Mini Lab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자유왕래는 단순히 사진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수출에만 의존하여 왔던 쌍안경의 경우에도 금강산의 비경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수요가 증가, 내수시장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Camcorder의 경우는 아직 보급이 초기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 수요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사기의 경우 일찍 북한에서는 남한과의 경쟁을 의식한듯 행정구역을 종전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일부에서 자강도, 양강도, 평양, 개성직할시 등을 설치하면서 3개 특별(직)시 등 9개도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행정관청 수요를 비롯하여 많은 복사기의 추가 수요가 발생되어 현재 국내 업체들이 협소한 내수시장 때문에 겪고 있는 경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자체 Brand 제품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복사기업계로서는 북한시장에의 진출은 초기 수출시험 시장으로서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자유왕래는 단순히 사진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수출에만 의존하여 왔던 쌍안경의 경우에도 금강산의 비경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수요가 증가, 내수시장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미경, 레이저, 고급광학렌즈 등 산업도 남북경제교류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다. 원래 북한의 경제는 군수산업 위주로 성장하였다고 볼때 북한의 정밀기계부품 산업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기술·경영능력과 결합할 때 상당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주요품목별로 개략적으로 남북경제통합시를 가정하여 막연하나마 추정하여 보았으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 자유왕래가 가져올 사진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여타부문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집될 때 특히 역사가 짧고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광학산업은 한차원 높은 수요창출과 이에따른 투자확대를 유발하여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